

“사찰풍수는 하화중생 방편”

‘제왕의 길’ ‘한국풍수...’ ‘도선국사...’ 등 서점마다 명당차지

권선징악 생활윤리로 환경파괴등에 경고 과학·철학·환경학 토대 심층연구 필요

“나는 용맹스럽게 기도했고 전국을 떠돌며 절을 세우거나 탑을 세워 이 땅을 비보(禱補)했다. 그리하여 이 땅을 화평한 불국토로 바꾸고자 했다.”

도선국사의 일대기를 소설화한 장편소설 《제왕의 길》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최근들어 풍수를 다룬 이같은 책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김종록의 《제왕의 길》과 김광재의 《나의 땅담 답사기》, 장영훈의 《영남의 풍수》, 김두규의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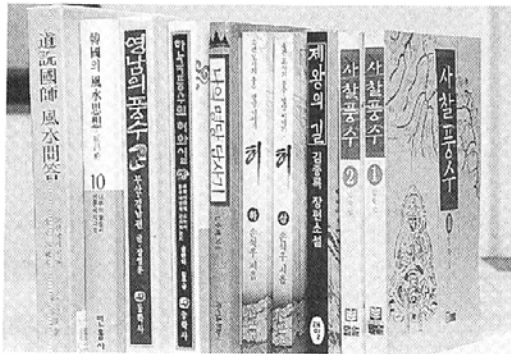
국 풍수의 허와 실》, 임화섭의 《사찰풍수》, 정관도의 《도선국사 풍수문답》 등이 그것.

시중에 쏟아져 나오는 풍수지리서들이 묘자리(陰宅)를 중심으로 명당자리 찾기에 몰두하는 반면, 사찰풍수를 다룬 책들은 서기(瑞氣)를 복돋우고 악기(惡氣)를 누르는 비보책(禱補策)으로 국토 전체를 불국토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사찰풍수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소극적인 기복보다는 적극적인 불국토의 실현을 통한 국가적인 복리를 강조한다.

《사찰풍수》의 저자 임화섭씨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찰이 산속에서 지어진 이유는 산천의 최한 기운을 보이며 국가의 기틀을 튼튼하게 한다는 산천비보의 의식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땅을 다스리는 처지법(治地法)에 따라 비보책을 쓴다면 지상에 나쁜 땅이란 없으며 밭길 닿는 곳마다 길지(吉地)요, 복지(福地)라는 것이다. 이같은 논리는 모두 도선국사가 강조한 비보설에 따르고 있다. 도선



국사는 이 나라 산천을 비보하는데 부처법을 빌렸으며, 산천의 지세를 보고 절정한 자리에 절이나 탑 등의 비보사탑(禱補寺塔)을 무수히 세워 하화중생(下化衆生)의 방편으로 활용했다. 도선국사가 남긴 ‘산천비보의 일환으로 절을 세우고 탑을 세워 얻어진 풍수의 국가적 이익이 선리(禪理)의 정묘함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은 풍수가 중생구제의 한 방편이었으며, 그가 술승이 아닌 선승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국풍수의 허와 실》의 저자인 김두규교수(우석대)는 “풍수지리는 고대의 과학 철학 미학 윤리학 환경학적 개념을 토대로 한 종합학문이었다”며 환경에 적응하는 한국인의 삶

과 죽음의 논리를 통해 우리 땅의 문화를 새롭게 조명했다. 김교수는 “국가나 대학 등 연구단체의 지원하에 풍수지리가 연구된다면 풍수지리에 기생하는 각종 술수나 미신, 허황된 이야기들이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풍수지리가 학문의 대상으로 선을 보인 것은 1984년 서울대 최창조교수의 《한국의 풍수사상》이 나오기 부터였다. 1987년에는 ‘풍수지리설의 건축에 대한 합리적 적용’을 주제로 한 학위논문이 박사의 박사학위 해 출간됐고, 1990년에는 이몽일씨가 박사학위논문으로 ‘한국풍수사상사’를 써 풍수지리를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분야로 연구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풍수의 비조인 도선국사와 중흥조인 무학대사를 낳은 불교계는 이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아직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보는 집합적 환경론과 유기체적 우주관, 권선징악의 생활윤리 등을 보여주는 풍수는 환경파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새로운 환경론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더 적극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하겠다.

김재경 기자



동화 ‘부처님의 연꽃들’ 6권 나와

육바라밀 항목별정리

도서출판 하나원(대표 정장복)이 어린이날을 맞아 동화책 《부처님의 연꽃들》 1집 6권을 펴냈다.

배우는 마음(보시), 계율을 지키는 마음(지계), 인내하는 마음(인욕), 노력하는 마음(정진), 깨끗한 마음(선정), 슬기로운 마음(반야) 등 육바라밀의 각 항목을 어린이들의 정서에 맞는 용어로 풀이했다. 글은 아동문학가 이슬기씨(한국불교아동문화회 이사)가, 그림은 이미지 김태란 고혜진 조명화씨 등이 맡았고 감수는 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부회장 송복스님(등인정사 주

‘선과 현대신학’ 등 3권 동시 출간

대원정사(대표 장상건)는 최근 ‘불교와 기독교 대화 총서’ 제 5, 6, 7권 《선과 현대철학》 《선과 현대신학》 《선과 종교철학》을 동시에 발간했다.

3년전부터 《종교란 무엇인가》 《불교의 공과 하나님》 등 4권의 ‘불교와 기독교 대화 총서’를 내면서 종교간의 상호이해와 대화에 앞장서 온 대원정사가 펴낸 이번 대화총서 3권은 모두 일본의 저명한 불교학자 아베 마사오(阿部正雄; 하와이대 교수)가 20여년간 발표한 논문들을 지난해 태계한 변선환목사가 엮었다. 엮은이의 말은 **故 변선환목사의 미망인 신옥희교수(이대 철학과)가 썼다.**

《선과 현대철학》은 서양사상의 흐름과 관련된 불교의 특

점묘함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은 풍수가 중생구제의 한 방편이었으며, 그가 술승이 아닌 선승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국풍수의 허와 실》의 저자인 김두규교수(우석대)는 “풍수지리는 고대의 과학 철학 미학 윤리학 환경학적 개념을 토대로 한 종합학문이었다”며 환경에 적응하는 한국인의 삶



◇ 아베교수

◇ 故 변선환목사

새로 나온 책...

▲ 불교의 이해와 실천 2(이종도 저)=불교방송에서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전년대 이종도교수의 ‘불교의 현대적 이해’ 강의록을 단행본으로 엮은 불교입문서. 부처님 근부교설이 실려 있는 《아함경》과 육바라밀이 담겨 있는 《육도집경(六度集經)》을 중심으로 불교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한 전반적인 것을 그림과 함께 자세히 설명했다. 역사에 관심이 있거나 문화재를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에겐 기본적인 입문서가, 문화유적을 둘러 보고자 하는 이들에겐 훌륭한 답사 안내서가 될 것이다.

《하연문화사 1만원》

▲ 신봉승의 조선사 나들이(신봉승 저)=한국역사문화연구원 소수를 개설, 사료를 정리 분석하며 대화소설 《조선왕조 오백년》(48권) 《소설 한행회》(7권) 《찬란한 여명》(5권) 등을 발표한 작가 신봉승씨(공예윤리 위 부위원장)가 조선사의 뒷배기를 예세이식으로 엮으면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했다. (답게 1만원)

◇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순위	도서명	저·판자	출판사
1	달을 듣는 강물	김진태	해냄
2	농민경주해	윤허	동국역경원
3	기도	일타	효티
4	그 마음을 바쳐라	김재용	용화
5	저마다 깨친 인연이 있었네	김원한	우리출판사
6	업보	혜발	밀알
7	진생여행	김영우	정신세계사
8	금강경강의	부비	불광
9	부처님 말씀	성열	현암사
10	알기쉬운 법화경강설	능가	대흥기획

구입문의: (02)737-0695

명사주전

불서 100선

백운화상 ‘직지심체요절’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며, 성불이라고 하는 것도 단지 스스로의 심성에 대한 지견(知見)으로 이뤄진다는 뜻이다.

이밖에도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며(佛如衆生無二), 색과 공이 둘이 아니며(色空不二),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生死不二)’는 내용의 《지공화상 14승》 등 선의 핵심을 밝힌 명문으로 가득차 있다. 이 책 마지막장에는 인쇄시기, 인쇄장소, 인쇄방

禪 핵심 밝힌 조사어록 가득 “자기마음에서 ‘부처’ 찾아라”

관 건립을 추진해 지난 92년 3월에 박물관 개관이란 결실을 보게 됐다. 이어 청주 관음사 주지인 장이두스님의 도움으로 영인본과 번역본을 발행하기도 했다.

이 책의 내용은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의 어록중에서 선의 요체를 깨닫는데 필요한 선문답, 시, 편지, 수필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오등회원(五燈會元)》 등의 문헌에서 ‘직지인심 경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의 요체를 편성해 《직지심경》으로 알려지고 있다.

‘직지인심 경성성불’은 선종의 오도(悟道)를 보여주는 말로서, 좌선에 의지해서 바로 스스로의 심성을 깨우쳐야 할 때 본래의 면목이 나타나 제불(諸佛)의 묘한 경지에 이른다는 뜻을 담고 있다.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은 원래 하나이므로 부처도

법(금속활자 인쇄)이 기록되어 있다.

백운화상의 범명은 경한(鏡閑)이며 고려말 충렬왕때 전라도 고부에서 출생하고 원나라 임제종의 법을 얻고 귀국해 해주 신광사에서 중종을 펼쳤다. 75세가 되는 해에 《직지심체요절》을 초록하고 여주 취암사에서 79세를 일기로 입적했다.

지난 72년 ‘세계도시의 해’ 기념행사인 ‘책의 역사’ 전시회에 출품돼 비로소 빛을 보게 된 《직지심체요절》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 책은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해 찍었다는 《세계의 심판》보다도 무려 70여년이나 빠른 것으로 우리 선조들이 인류 문화사상 제일 먼저 금속활자를 발명한 우수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다.



김광식 (청주교인쇄박물관장)

해동국을 거대한 만다라로 장엄해 보라!

김종록 장편소설 제왕의 길

이 땅을 불국토의 거대한 법당으로 비보하려 했던 옥룡자 도선국사의 역정을 더듬는다.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했으나 그 쇠락의 끝에 선 신라왕실, 그 난세(亂世)에 삼강오도를 주유하며, 이 땅의 청사를 빛낸 지도자의 출현을 예언한 선각자 도선국사! 유물선의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들며 서로 어그러짐이나 축남이 없었던 대인(大人)이었고, 하늘의 뜻을 지상에서 실현시키고자 했던 그는 대양 유학승이 행세하던 시절 원효성사가 그러했듯 이 땅에서 득도하여 비유비불비선의 해동 지성의 길을 걸었다. 그가 살았던 신라 말이나 오늘 우리시대의 상황이 너무나 흡사하여 천년 전의 그의 말씀은 오늘 그대로 우리의 양식이 된다.

신국판/328쪽/6,800원

레이출판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전화 927-2831 팩스 924-3236